

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0. 28.(수)

한국수자원공사, 마이크로소프트와 수도권·부산 물 복원 협력 계약 체결

- 소양강댐 이어 수도권 누수 저감 및 부산 에코델타시티 수질개선 추가 협력
- 글로벌 기업의 ESG 투자를 기반으로 국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물 환원 성과 창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실현을 위한 추가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소양강댐 상류 인공습지 조성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에는 수도권 지역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두 가지 협력 사업을 새롭게 발굴했다.

*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기업이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자연과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환원하거나 재이용하는 자발적인 물 복원 활동을 말함.

마이크로소프트는 워터 포지티브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러한 행동 가치를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며 국제적 실천을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최근 대규모 첨단산업 활성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자원 부족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은 이번 계약을 발판 삼아 물 관리 전문성과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결합한 민·공 협력 모델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협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속가능성 투자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공 물관리 전문성을 결합한 것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투자를 물 안보 강화, 생태계 건강성 회복, 공공 공간 개선 등 검증된 지역 성과로 연결하는 모델을 마련했다. 각 사업은 측정 가능한 물 복원 효과(Volumetric Water Benefit)를 창출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목표 달성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물 복원 효과란 사업을 통해 보충되거나

절감되는 물의 양을 의미한다. 사업으로 창출되는 물 복원 효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법론에 따라 독립적으로 산정·검증될 예정이다.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는 첨단 누수 탐지 및 보수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수도 관망에서 유실되는 물을 줄임으로써 한강 유역의 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용수 확보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10년간 약 590만 m^3 의 물 복원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 약 5만 3천여 명이 1년간 사용하는 물의 양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에서는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평강천의 하천수를 정화하는 통합 수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오염된 하천수를 정화하여 도시 내 호수공원과 주운수로의 유지용수로 공급함으로써 약 190만 m^3 의 물 복원 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낙동강 유역 전반의 수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와 학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수자원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ESG 투자가 국내 지역사회의 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한다. 기업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물 복원 실적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는 물 안보 강화와 생태계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된다. 민간의 과감한 지속가능경영 투자가 공공의 환경가치 제고와 맞물려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성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 지역과 부산에서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한 것은 글로벌 물 복원 시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선도적 역할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과 다양한 협력을 확대하여 국가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비키 로빈슨(Vickie Robinson) 마이크로소프트 에너지·연결성·지속가능성 부문 총괄은 “물 문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 있는 변화는 지역사회와 유역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물 손실을 줄이고 도시 물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물관리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지역 협력 기관과 함께 지역사회와 환경에 측정 가능하고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폭넓은 물관리 책임(Water Stewardship) 접근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1매(별첨). 끝.

담당 부서	신성장전략단 기후위기대응부	책임자	부 장	진성원 (042-629-2380)
		담당자	과 장	정현영 (042-629-2386)





[사진]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구축 예정인 도시 물순환 통합 수처리시설 전경(조감도).

한국수자원공사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평강천의 하천수를 정화하는 통합 수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오염된 하천수를 정화하여 도시 내 호수공원과 주운수로의 유지용수로 공급함으로써 유역 전반의 수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AI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수도 관망에서 유실되는 물을 줄임으로써 한강 유역의 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용수 확보 효과를 창출하는 등 워터 포지티브 실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